

‘배아 지위’ 다각 검토... 결론 못내

“태아는 성인과 동일한 생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인락사는 불살생계를 어기는 것이므로 반대하며 배아복제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이하 불교생명윤리위)의 보고서가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공개 심포지엄 형식으로 발표됐다. 불교생명윤리

위는 생명윤리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불교적인 답을 모색하기 위해 조계종 사회부(부장 지원)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공동대표 백남석) 외 가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지난 1월 발족했다. 불교생명윤리위는 4개 팀을 구성해서 각각 △생명조직 △낙태 △뇌사 △장기이식 △인락사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심포지엄에서도 각 주제별로 보고서가 발표됐다.

배아복제에 대한 입장 “유보”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생명조직분야. 이 분야에서 배아복제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이다.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와 같은 일정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불교학·윤리학·생명공학 등 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된 생명조직분야팀의 보고서는 균형된 시각을 잃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보고서 초점은 배아의 지위에 맞춰졌다. 발표는 생명조직분야 팀(미산 스님, 허남결 동국대 교수, 우희중 서울대 교수)을 대표해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맡았다.

배아가 생명체인가 하는 점에 대해 미산 스님은 “어느 시기부터 배아를 인간개체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는 인간이라고 규정할 만한 어떤 실체가 있다는 관점을 전제하는 것으로, 5운을 자아로 취착하는 전도된 가치관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은 논의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5운의 생성 시점을 따지자면 <유사사지론>을 따라 수정부터 인간개체라 볼 수도 있고, 초기정전을 따라 감수성(精)과 의지성(行), 행위성(業)을 갖추게 되는 착상 이후부터를 인간생명체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아를 생명이라 가정할 때 더 큰 지위의 대상을 위해 배아가 희생돼도 좋은가 하는 점에 대해 미산 스님은 “배아가 생명이라면 불살생계의 입장에서 존중돼야하겠지만,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켜 생명을 영위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설득력 없는 이율배반적 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인간만이 존엄하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론부에서 미산 스님은 “선악사비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원인과 조건의 작용·중간과 끝의 전체적인 흐름을 연기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양한 원인들이 다 파악되기 전에 성급하게 배아가 생명체라 아니냐를 판단할 경우 끝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입장 표명 유보를 시사했다.

이울러 미산 스님은 “이런 논의를 시작으로 종단에 상설연구기관을 설립해 생명윤리 전반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불교생명윤리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했다.

불교생명윤리심포지엄 주요내용



불교생명윤리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공개심포지엄을 갖고 불교적인 생명윤리 답변 형성에 나섰다.

“전체 흐름속 원인·조건 연기적으로 파악해야”

생명윤리팀 설립 제안... 뇌사, 죽음으로 정의

유사수정란도 착상 가능, 우생학적 이용 가능성 시사

낙태·인락사·사형제도 “반대”

낙태에 대해서는 팀원(고영섭 동국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우희중 연세대 교수)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팀을 대표해 발표를 맡은 고영섭 교수는 “태아는 생명체로 성인과 동일한 의미의 생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인신 존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교의 생명중중정신을 계승하면서 임신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 교수의 △타아 및 장애아 시설 확충 △낙태된 영아 천도 △부모에 관해 기회 부여 등을 제안했다.

뇌사·장기이식·인락사 분야 팀(김만연 중앙대 교수, 전재성 한국백혈암리선협회장, 황상의 서울대 교수)는 뇌사에 대해 “의식이 신체를 대상으로 집주하지 못하는, 즉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며 뇌사를 ‘죽음’으로 규정했다.

또 장기이식에 대해서는 “대승불교적 보시와 방생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자비정신으로 이행을”으로 평가했다.

인락사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비자발적이든 인락사에 개인한 이를 추방이라는 중벌로 다스렸던 율장을 근거로 ‘반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인락사의 대안으로 “자신의 현재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호스피스운동”을 제시했다.

사형제도분야 팀(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백도수 동국대 강사, 진희권 경기대 법대 교수)은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중오를 중오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사회적 제도”라며 “악행을 반성하고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불교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 지속돼야

참석자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불교계가 생명윤리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에 이수가 되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전개했다.

생명조직분야 보고서에 대한 논평자로 나선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인간 개념을 의미가 명확한 중심부와 의미가 희미해지는 주변부로 나누고, 배아복제 문제는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객관적 사실의 정제성이 흐려질 때에는 거꾸로 주관의 영역인 가치의 세계를 기준으로 삼아 사실의 세계에 선을 그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입각해 김 교수는 “수정란을 해치는 것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지만, 선한 가치가 분명하다면 인간 개념의 끝에서 이뤄지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살인 행위라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남결 교수는 “인간 개념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는 것은 윤리적으로 유용한 개념이 아니다”고 일축하는 한편,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생명윤리와 연구윤리가 결여된 만큼 배아를 생명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기록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희중 교수는 유사수정란이 착상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유사수정란도 착상이 가능하며, 기술이 축적되면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고 밝히며 “훗날 우생학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불교생명윤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톨릭계는 성체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하고, 불교계는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종교에 따라 맹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태도는 적절치 못하다”고 우려했다.

낙태와 관련하여는 성폭력 피해자도 낙태를 해선 안 된다는 질문이 제기됐다.

고영섭 교수는 이에 대해 “교리적으로 볼 때 불살생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불살생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출산토록 해서 산모가 업을 짓지 않도록 하고, 입양시설을 확충해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2>

연료전지

2003년도 연료전지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연료전지의 개발을 위해 약 1조원의 연구비를 책정키로 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했다. 이를 계기로 연료전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됐다.

연료전지는 ‘fuel cell’의 번역으로,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를 충전하듯이 수소를 충전하면 전지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보다 오히려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먼저 출현했다. 공학기술에서는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중요하며, 휘발유에 비해서 전지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부피를 가지고 달릴 수

기화학적 반응은 우리 몸이 음식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심지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의 기본을 이룬다. 가령 음식은 소화기관에서 탄소물질로 변하는데, 이 탄소물질이 산소에 전자를 주는 산화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내어 놓음으로써 우리 몸의 체온과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내어놓는 작용이 호흡이다.

단기 우리의 몸에서는 서서히 산화 환원작용이 일어나도록 신진대사를 조절함으로써, 급하게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오토타믹 시스템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작용 또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물질의 전자의 주고받음에 의한 작용임을 알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전기 발생 번뇌 일어남도 순간적인 전자 작용

있는 거리가 짧아 충전을 자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100년 전 사라졌던 전지 자동차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지가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간단한 산화·환원반응에 기초한다. 물질들은 각기 성질이 달라서 전자를 주고 받는 능력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구리와 아연을 전해질 용액에 담구면, 아연은 전자를 주면서 +이온이 되고, 구리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외부에서 전구를 달아주면, 이 전자가 흘러서 전구를 켜는 것이다. 이렇게 전자를 주려는 물질(산화작용)과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물질(환원작용)의 성질 차이로 전기가 발생된다.

이러한 전자의 주고받음에 의한 전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전기의 흐름이 신경 세포를 통하여 뇌로 전달되어 인식, 기억이라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유 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자기 연민이 일어날 때, 이 번뇌가 단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전자의 작용임을 이해하자. 그리고 이 작용 역시 영원히 계속되는 실재가 있는 것이기보다, 거대하게 흘러가는 신호와 에너지의 한 발 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자.

다르마의 모습이 ‘경유능경 능유경 능경(境由能境 能由境能)’, 즉 경계(境, 유위법)와 주관(能, 깨달음)이 서로 기대어서 흘러간다는 승찬 스님의 <심심명> 한 구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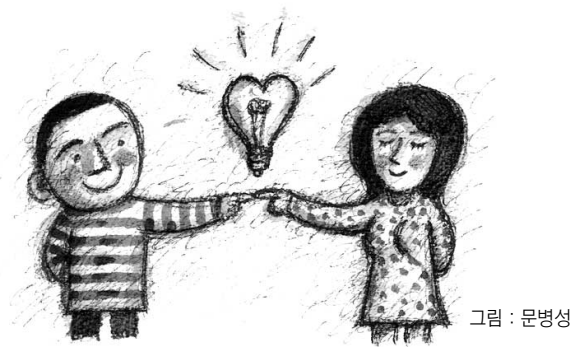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룩내용

- 공감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오 딸이 미처가고 있어오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관 무엇인가? 임신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인태와 색사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지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비법 ▶피로 보는 공합
- ▶달로 보는 공합 ▶시(時)로 보는 공합
- ▶날짜로 손(상성) 보는 법 ▶삼재법

전 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정동(명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담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중의 영항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담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장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담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담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담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력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책자의 신비

산소(음택)중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내용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항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가기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분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기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기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기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기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1 영기천도의 의미와 영기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기들의 영항력!
- 3 영기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기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항을 미치는가?
- 5 영기들의 영항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축, 연축 인체치영기법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기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기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공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